

# 캐나다 장로교회 참회고백서 (1994년 6월 9일 제 120회 총회 채택)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께서 캐나다 장로교회가 한 마음으로 고백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들려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답하고자 다음과 같은 고백을 드립니다. 그간 캐나다 원주민들이 경험한 바를 들으며, 우리는 우리의 선교 및 사역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1. 캐나다 장로교회 제 120회 총회로 모인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를 향해 다 함께 말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우리 앞선 세대의 사람들보다 우리의 판단 능력이 뛰어나거나, 동일한 상황에서 우리는 다르게 행동했을 것이라 여기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겸허하게 낮아진, 또 큰 아픔이 가득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과 우리 원주민 형제 자매들이 있는 곳으로 이 고백을 하며 함께 나아갑니다.
2. 캐나다 정부가 캐나다 원주민들에 대해 세웠던 정책은 원주민들이 캐나다 사회의 문화에 동화되게 하려는 것이었으며, 캐나다 장로 교회가 이 정책이 수행되는데 협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이러한 해악을 끼치게 된 원인은 서구 유럽 열강이 식민지를 확장하려 했던 제국주의적 가치관에 근거하고 있음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장주의적 가치관에 기인하여, 우리와 다른 이들은 우리의 기준을 따라 개선·개발되도록 변경을 가해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원주민들에 대한 캐나다 정부의 방침에 동조하여 캐나다 장로교 이외의 교회들과 함께, 캐나다 정부에서 원주민들이 중요하게 여긴 영적 의미가 담긴 관습 및 행사를 금지하게 하도록 청원하였습니다. 그러한 관습 및 행사를 통해 원주민들은 창조주(創造主)의 현현(顯現)을 경험하였습니다. 원주민들에 대한 정부의 방침에 공조하였던 것에 대해 우리는 용서를 구합니다.
3. 원주민 형제 자매들을 위한 넘치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 아픔에 가까이 다가 가고자 자신을 내어 주었던 선한 믿음의 사람들이 캐나다 장로교에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헌신을 우리는 귀히 여기며 그들을 통해 이루어진 일에 경의를 표합니다. 선지자적인 통찰력으로 원주민 형제 자매들에게 가해지는 해악을 인지하고서 이에 대해 저항하였던 사람들이 있었으나 그러한 노력이 좌절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저항을 보여주었던 사람들의 통찰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러한 선지자적 목소리를 발하던 사람들을 지지하지 않았고 그 정의를 향한 외침에 귀 기울이지도 않았던 때가 있었기에 우리는 용서를 구합니다.

4. 생명과 삶에 대해 캐나다 장로교회가 원주민들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듯 자만했던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원주민 형제 자매들에 대해 교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와 같아지는 것이 만약 가능하다면, 우리처럼 생각하고, 우리처럼 말하고, 우리와 동일한 방식으로 예배하고, 노래하고, 우리를 본받아 일할 수 있게 된다면, 그제서야 저들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적 오만함으로 인해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방식은 우리를 둘러싼 사회·문화적 특성의 제한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원주민 문화에 대한 무지함으로 인해, 복음 자체가 원주민들에게 기대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원주민들에게 요구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릇된 방식으로 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도록 모든 이들에게 공휴이 가득한 사랑을 내리시며, 고통을 나누시는 사랑으로 함께 하십니다. 교회의 이러한 오만함에 대해 우리는 용서를 구합니다.
5. 캐나다 장로교회는 정부의 독려 및 지원하에, ‘원주민 아이들이 가정을 떠나, 원주민들을 교육시킨다는 명목으로 세워진 기숙 학교에 강제로 입학하게 하는 일’에 동조하였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기숙 학교에서 원주민 어린이들은 자신들의 전통적 사고 및 삶의 방식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원주민 어린이들이 캐나다 사회의 문화에 동화되도록 유럽 및 캐나다인들의 관습을 배울 것을 강요 받았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동화의 과정이 이루어지게 하고자, 캐나다 장로교회는 원주민들이 사용한 적이 없었던 방식의 징계와 처벌을 원주민 어린이들에게 가했습니다. 이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돌봄과 가르침의 기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이었으며, 신체적·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학대가 발생할 수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지시에 따르는 것이 일상화 되어 있는 교육 환경에서, 성적인 학대를 받은 어린이들 또한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원주민들이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 및 건강한 자아인식을 잃어 버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원주민들의 아픔에 교회가 이토록 무감각했던 것에 대해 우리는 용서를 구합니다.
6. 캐나다 장로교회의 선교와 사역의 결과로 그 삶에 깊은 상처를 입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용서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렇게 상처 입은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7. 우리는 또한 원주민들의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가 듣게 되었던 많은 이야기의 그 진실성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했던 아픔이 너무나 깊어 그에 대해 말하기조차 힘든 분들의 마음에 우리의 고백이 가 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함께 치유되고 온전하게 되기 위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원주민들과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